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제6차 아시아사회정책포럼 개최와 사회보장 학술네트워크 확대

□ 과제명

- [지원19-001-00]연구기획
- [관련19-005-00]사회보장정책연구 국제화 및 국제사회보장DB 구축사업

□ 출장기간

- 2019.05.07.(화)~2019.05.10.(금)

□ 출장국가(도시)

- 중국(북경)

□ 출장자

- 조홍식 원장, 김현경 연구위원, 유재언, 임성은, 임정미 부연구위원

□ 일정요약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활동상황
05.08	중국(북경)	Xinhai Jinjiang Hotel	Wang Wiexiu, Reiko Hayashi 등	- 제6차 아시아사회정책포럼 개최 - 중국 민정부 정책연구센터와 MOU 갱신
05.09	중국(북경)	Guoan Yinbai Nursing Care Center, Beijing Niujie Ethnic Nursing Home	Wo Xueyuan, Liang Jing 등	- 요양기관 방문: 시설, 요금(재원), 종사자 규모 및 처우, 시설거주자 특성 등 간담회
05.09	중국(북경)	인민대	Zheng Gongcheng, 김병철 등	- 중국 사회보장학회와 MOU체결 - 향후 협력방안 논의

2 출장 주요내용

①	제6차 아시아사회정책 포럼, 민정부 정책연구센터 MOU 재체결
일 시	05.08(수) 08:15~17:30
장 소	북경(Xinhai Jinjiang Hotel)
참석자	Wang Wixiu(중국 민정부 정책연구센터), Reiko Hayashi(일본 인구사회보장문제연구소), 김병철(인민대), 조홍식, 김현경, 유재언, 임성은, 임정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약 25명
<p>□ 세션 1: 한중일 노인장기요양제도 현황과 정책과제</p> <p>○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Development and Current Change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older adults in Korea - 발표자: 유재언(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배경과 역사: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돌봄의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고자 2000년대 초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2003~2005년 추진단과 2005~2008년 시범사업을 거친 후, 2008년부터 시행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 현황: 목적, 대상, 서비스 범위, 이용절차, 등급판정, 급여 종류 및 내용, 공급 및 수요 현황, 재정 및 급여 한도 등 현재의 구체적인 운영 규정과 통계를 설명함 · 최근 이슈와 향후 과제: 공공성과 서비스 질 개선, 지역사회 계속 돌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확대, 재정 부담 경감의 네 가지 이슈를 제기하고 향후 과제로 논의함 <p>○ 일본의 개호보험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Experience and Lessons from Japan's Nursing Care Insurance System - 발표자: Masuda Masanobu(도쿄온라인대학)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개호보험 도입 과정에서의 역사, 당시의 쟁점, 목적: 1994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1997년 개호보험법을 제정하고, 2000년 법을 강화함. 2005년, 2008년, 2012년, 2014년, 2017년 5회에 걸쳐 법을 개정함. 도입 배경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봄 부담의 증가 때문이었고, 개호보험을 통해 	

노인들의 독립된 생활 보장, 이용자 중심 돌봄체계 마련, 국가·사회·개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줄이고자 함

- 일본 개호보험의 운영 현황: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개호보험 예산은 약 8배, 가입자 수는 약 7배 증가하였고, 인정자수 3배 증가함. 일본에서도 요양필요도에 따라 총 7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량 한도에 차이가 있음
- 일본 개호보험의 최근 이슈: 돌봄서비스를 보편화하고, 돌봄사업을 확대하며,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지역포괄케어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 향후 주요 과제로는 재정 안정화, 이용자의 안전과 보호, 외국 인력을 활용한 돌봄제공자 공급 부족 해소, 가족돌봄제공자의 가치 인정과 수당 지급 등이 있음

○ 중국의 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

- 제목: China's Long-term Care Insurance Pilot Study

- 발표자: Yu Jianming(중국민정부정책연구센터)

- 내용

- 시범사업의 도입 배경 및 역사: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부양문제가 제기되던 상황에서 중국에서도 2012년 장기요양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함. 2012년 청도 지방에서 시범사업을 하였고, 기존 보건의료 체계와의 관계 설정, 돌봄의 질과 같은 보완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됨. 청도 지방의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토대로 2015년 장춘(Changchun), 난통(Nantong) 지방 등에서 시범사업을 확대해서 운영함
- 시범사업의 전국적 확대: 2016년에는 전국적인 시범사업을 시작함. 시범사업의 명칭, 서비스 제공 주체(가정, 시설, 병원), 대상, 급여량, 급여 내용, 지급 방식 등 운영방식은 지역마다 각기 다르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평가하는 과정에 있음
- 향후 과제: 최근 재정 확보 방안, 보험료 부과 방식, 급여 내용과 서비스 질 향상, 서비스 질 관리체계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

□ 세션 2: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욕구와 정책: 한국, 중국의 현황

○ 한국

- 제목: The New Role of Community Social Services Investment Program with the Introduction of Community Care in Korea
- 발표자: 임성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내용

1. 커뮤니티케어 도입의 배경

- (급격한 고령화)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노인 대상의 복지서비스 수요 증가 및 부양비 부담 급증
※ 노인인구비율: 14.2%('17)→20.3%('17)→25.0%('17)→46.5%('17)
- (높은 시설보호 의존도) 지역사회와 격리된 대형시설·병원 중심의 돌봄·치료·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사회지출 지속 증가
- (AIP 욕구 증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노인들의 욕구 증대
- (분절적 돌봄체계) 보건의료·복지부문간 연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파편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돌봄의 연속성을 방해

2.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보건복지부는 1단계인 노인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 발표('18.11) 및 2019년부터 2년간 선도사업 실시

커뮤니티케어: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가도록 주거지원·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적 생활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

- 민관협력과 지역사회 자원의 적극적인 발굴 및 연계 강조
 - 개인의 욕구에 맞게 분야별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지원
- (추진체계) 중앙정부, 광역지자체(시군구), 기초지자체(읍면동)의 역할 정립 및 협력체계 구축



Source: Hankyoreh, retrieved April 22, 2019, from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871188.html.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2007년부터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을 모태로 시작
-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이용하도록 전자바우처를 지원하되, 전액 정부지원이 아닌 본인부담금 부여
- 이용자 선정기준은 소득, 연령, 서비스욕구이며, 현재 17개 표준모델이 존재

4. 컴케어 도입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정책과제

- 서비스의 분절성 개선을 위한 서비스 패키지화 필요
 -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를 통해 필요 서비스를 통합 제공
- 지역사회 가용자원 정보 공유 및 연계 강화 필요
- 이용대상자 자격기준 확대 필요
 - 소득기준에 따라 자격기준이 제한되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소득기준 상향조정을 통해 일반 이용자의 구매력 확대
-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
 - 서비스 양적 증대에 따라 수요-공급 예측, 공급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확대, 자격기준 강화, 처우 개선, 지역별 격차 완화
- 중국
 - 제목: The Supply and Demand Status of Rural Elderly-care Services in China
 - 발표자: An Chao(중국민정부정책연구센터)
 - 내용

【중국】

- (90%, 재가돌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노인 스스로 혹은 가족이 돌봄을 제공
- (4%, 시설돌봄) 시설입소를 통한 돌봄서비스 이용
- (6%, 재가서비스)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재가방문 돌봄서비스를 이용
- 도시·농촌 노인 모두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재가방문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2015 The Fourth Sample Survey on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Elderly in Urban and Rural Areas of China).

□ 세션 3: 고령화와 노인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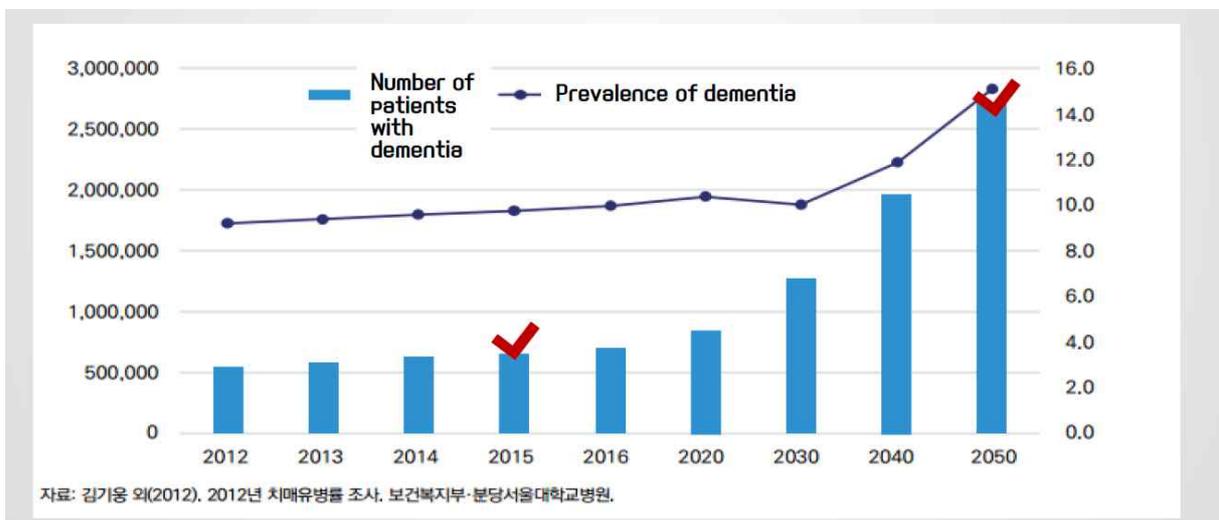
○ 한국의 고령화와 노인학대

- 제목: Current Situation and Challenges of Elder Abuse in Korea

- 발표자: 임정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내용

- 한국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름. 2017년 17%,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26년 22.9%로 초고령사회에 진입예정
- 이러한 인구고령화는 의료적 욕구, 케어(돌봄) 및 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킴. 특히 후기고령자의 증가는 치매노인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2008년 치매환자수는 42만명, 2015년에는 65만명. 2020년에는 약 271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이는 전체노인인구의 약 15% 정도임



-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피학대 노인 중 치매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9%로 인구고령화는 노인학대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 대책이 필요함
- 실제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2018년 노인학대 발생건수에 대한 집계가 이루어진 이래 최고치를 나타냄. 특히 가정내 학대의 감소경향과 달리 시설내 학대의 증가가 뚜렷한 상황
- 한국의 노인학대 정의는 5가지 학대유형으로 이루어지고 발생장소에 따라 가정내 학대, 시설내 학대로 나뉘어짐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8)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매년 증가경향을 보이고, 그중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약 34.7%에 달함
- 노인학대 재발생 건수 역시 7.8%를 나타냄
- 주목해야할 점은 학대가해자 중 60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점점 커진다는 것임. 이는 곧 노노돌봄이 노인학대나 간병살인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뜻하며, 노노돌봄 제공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함을 뜻함
- 학대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음의 내용이 제안될 수 있음. 첫째, 돌봄제공자(돌봄종사자 포함)의 돌봄부담 축소(단기보호시설 활용 및 상담, 케어 곤란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교육 등), 둘째, 노노돌봄에 대한 발생원인 및 대처/지원전략 수립, 셋째,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화, 넷째, 학대 희생자와 가해자에 대한 지원(케어매니지먼트, 각종 돌봄서비스 재조정,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심리치료 등), 다섯째, 효과적 학대예방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다섯째, 가정뿐 아니라 시설에서 발생하는 시설내 노인학대에 대한 정확한 파악(시설 내 학대가 발생하는 원인파악, 학대발생의 위험요인 및 예방요인에 관한 연구 활성화 등).



②	북경 노인요양시설 방문(2기관)
일 시	05.09(목) 오전
장 소	북경(Xinhai Jinjiang Hotel)
참석자	Wo Xueyuan(Guonan Yinbai Nursing Care Center), Liang Jing(Beijing Niujie Ethnic Nursing Home), Ding Peng(중국 민정부 정책연구센터), 김병철(인민대), 조홍식, 김현경, 유재언, 임성은, 임정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약 25명

□ 기관 1: Guonan Yinbai Nursing Care Center

- 2015년 건립, 40개 베드, 37명 독립생활 불가능한 노인 입주
- 1~4인실 있음. 병실간 1인당 500위안 정도 차이 8만원
- 자립훈련과 물리치료 병행, 근방 연계된 병원에서 의사 주1회 방문 치료
- 방문요양팀도 있음-세탁 목욕 서비스 제공
- 독서 및 악기연주 등 취미생활이 가능하도록 시설 갖추.

□ 기관 2: Beijing Niujie Ethnic Nursing Home

- 국영 땅 제공받음(국공립). 1만제곱미터, 220여명 노인생활(80세 이상이 202명), 회족 노인 82%, 2005년 완공, 2008년부터 입주자 수용, 회족 우선적으로 입주
- 1인실 12개, 전체 106개실(나머지 모두 2인실). 각 방에는 침상, 텔레비전, 냉장고, 전화, 옷장, 응급호출시스템, 독립적인 욕실 등이 구비되어 있음.
- 붙잡고 걸을 수 있는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출구,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은 모두 barrier-free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 휠체어도 접근 가능.
- 비용: 생활자립 가능한 노인 3천 위안, 불가능한 노인 4~5천 위안, 평가위원회에서 심사, 3개월에 한 번씩 생활자립 심사
- 비용이 저렴하고 시내중심으로 교통이 편리해 노인들이 선호하는 시설
- 사회복지사 5-6천, 요양보호사 4-5천 임금 낮은 편, 베이징 사회평균임금 1만위안
- 요양보호사에 대한 자체 교육도 실시
- 치료실, 100명이상이 한번에 들어갈 수 있는 다이닝룸, 다기능홀, 독서방, 그림, 컴퓨터, 체력단련실 등이 있음. 노인들의 활동을 위해 영어교실, 오페라 수업, 뜨개질, 서예, 컴퓨터수업, 다도교실 등이 열림.

③	중국 사회보장학회와 MOU 체결
일 시	05.09(목) 15:00~17:00
장 소	북경(인민대)
참석자	Zheng Gongcheng, 김병철(인민대), 조홍식, 김현경, 유재언, 임성은, 임정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약 10명

□ 중국 사회보장학회 소개와 협력의 의의

- 800개 학계 현장 연구기관 소속, 대학기관 50개가량 가입
- 사회보장영역 새로 세워진 모학회
- 20~30개 중국 주요 대학이 긴밀히 연결된 연구기지
- MOU체결은 한중 교류에 유의미하고 가치 있는 일
- 인력, 펀딩 등 협력을 위한 다양한 자원을 갖추고 있음.
- 중국입법 제도 만드는 기관과 밀접-민정부 인력지원사회보장부, 위생건강, 퇴역군인 관리부서와 긴밀한 관계, 신설된 인민대표회의 사회건설위원회와 긴밀하게 연결. 사회정책 입법 관련 공동연구를 중국 사회보장학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함께 진행할 것으로 요망.
- 아동, 노인복지 등 한국제도에 중국의 관심이 높음. 지난 이틀간 광둥에서 노인아동복지에 대한 회의가 개최되기도 했음.
- 중국 발전현황에 대해서도 배우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지속적인 협력 증진 약속

